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Weekly 선명상 41 팔자를 고치자



▶한줄 요약
고락의 감정을 업장(業障) 또는 팔자라고도 합니다. 업장소멸(業障消滅) 또는 팔자를 고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고락의 감정 두 가지 모두를 없애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인과가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苦樂 인과’를 끊어야 팔자가 변한다

업장 · 팔자가 바로 ‘고락의 감정’
업장소멸하려면 고락을 제거해야
‘身口意 청정’은 無분별해야 가능
감정 끊어 내면 부처 되는 길 보여



해당 삽화는 진우 스님의 한글 게송을 생성형 AI에 입력해 제작했습니다.

[오늘의 명상]
푸른 하늘 흰 구름 나의 벗이요,
맑은 바람 밝은 달은 정다운 이웃일세.
기러기와 함께한 이 하늘 멀다 걱정 않고
한강물 마신 이 물 깊다 원망 않네.

푸른 하늘, 흰 구름, 맑은 바람, 밝은 달과 정다운 이웃이 되려 하는가요? 걱정과 근심, 분노와 원망의 마음을 여의려 합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팔자를 고쳐 ‘부처 놀이’를 해야 합니다.

불교의 목적은 성불에 있습니다. 내가 곧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왜 부처가 돼야 할까요? 고통과 괴로움에서 완전히 해방되기 위해서입니다. 고통과 괴로움이 왜 생기는가에 대한 설명은 수차례에 걸쳐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기쁨과 즐거움, 행복을 추구하면 할수록 똑같은 질량(質量)의 고통과 괴로움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찰나에도 고락(苦樂-즐거움, 괴로움)의 감정이 서로 교차하지만, 때로는 평생을 나누어서 나타나기도 하고 전생과 금생, 내생에 의해 교차 윤회하며 과보(果報)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며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고통과 괴로움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고락의 감정을 업장(業障) 또는 팔자라고도 합니다. 업장소멸(業障消滅), 또는 팔자를 고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고락의 감정 두 가지 모두를 없애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인과가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락이 엎치락뒤치락하는 인과에 대해 굳건한 신심(信心)이 있어야 하고, 따라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인연의 흐름에 몸과 마음을 맡겨야 합니다.

즐기고자 하는 마음, 바라는 것을 성취하고자 하는 마음 등등. 한마디로 욕심과 탐심의 마음을 모두 내려놓아야 더 이상의 과보를 받지 않게 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방법 말고는 달리 선택할 길이 없습니다.

착하게, 남을 위해, 정의롭게, 부드럽게, 자상하게, 자비롭게 등의 선(善)에 대한 생각도 버려야 합니다. 이것을 선택하는 것은 이미 다른 저것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고, 다른 저것 또한 언젠가는 반드시 인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태어난다는 생각을 하면 이미 죽음이 기다리고 있고, 또 반드시 죽어야 하는 것이므로 태어난다 죽는다는 모두의 생각 자체를 없애야 태어남도 죽음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신구의(身口意) 삼업(三業)이라 하고, 이 삼업을 청정하게 하는 것은 곧 분별된 두 가지 생각, 분별된 두 가지 말, 분별된 두 가지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생각을 하거나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 선택을 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선택해도 인과에 걸리고 저것을 선택해도 결국은 인과에 걸리기 때문에 최선은 무심히 선택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생각을 하거나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고 난 다음 절대 후회하면 안 됩니다. 생기는 감정을 무조건 놓아 버려야 합니다. 이렇게만 한다면 마음은 잔잔한 호수와 같이 평화롭기 이를 데가 없어지고 모든 장애가 사라지며, 이것이 바로 최고의 선(善)이 되고 정의(正義)가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생각과 말과 행동은 그 행위에 대한 과보를 반드시 받게 됩니다. 그러나 분별하지 않고 무심한 상태에서의 행동과 말과 생각은 절대 과보를 받지 않게 되므로 이는 곧 가장 올바른 생각과 말과 행동이 되어 팔자를 고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부처가 되는 지름길이 됩니다.

이외의 것들은 그 어떤 선과 정의가 부르짖어도 혹세무민(惑世誣民)의 사탕발림에 불과한 것이므로 절대 인과의 틀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 명심 또 명심해야 합니다.

그럴 용기도, 힘도, 에너지도 없으면 우선 보시와 기도, 정진을 통하여 힘을 길러야 합니다.

[오늘의 명상]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면
그 순간부터 불만이 생기고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을 거라 생각하면
그 순간부터 불만은 사라지리.

입산 출가해 절집에 들어온 초심자에게 첫 번째 가르치는 것이 하심입니다.

근본적으로는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는 뜻이나, 적어도 마음을 한 단계 낮추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보다 더 좋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이보다 더 나쁜 것보다는 괜찮다고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야 편치 않은 마음이 사라지고 불만이 없어집니다.

사람의 감정은 상대적으로 움직입니다. 없는 사람은 있는 사람을 생각하며 마음이 편치 않고, 있는 사람은 자기보다 더 있는 사람을 생각하며 불만을 가지니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불만족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도 갖지 않은 사람은 아무 감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조건에서 어떤 사람은 둘을 받는데 본인은 하나밖에 받지 못한다면 ‘하나도 갖지 않은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더욱 기분 나빠합니다.

대개의 사람들은 모두가 잃고 빼앗기는 것에 민감합니다. 도리어 뺏기지 않으려 목숨 걸고 싸우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이치와 마음의 구조는 결국 공(空)으로 무(無)로 돌아갑니다.

파도가 아무리 이리 치고 저리 쳐도 파도는 높았다 낮았다할 뿐, 바다가 없어지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생겨난 것은 반드시 사라지고 태어난 것은 결국 죽습니다. 얻은 것은 반드시 잃습니다. 빼앗기고 잃는 것은 우연히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정교한 인과의 법칙에 의해 얻을 때 얻고 잃을 때 잃는 것입니다. 불만을 가지거나 속상해한다고 달라지지 않으니 스스로만 괴롭힐 뿐입니다.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잃는 것이 있고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빼앗기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잃고 빼앗기는 것을 아쉬워하고 괴로워하는 마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빼앗기거나 잃는 경우는 다반사입니다. 그때마다 속상해하는 마음 대신 ‘잃을 때의 인과가 생겼구나, 빼앗길 때의 인과가 생겼구나’라고 더 이상의 미련과 집착 없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면 그 즉시 마음이 편안해질 것입니다.

그래도 속상한 마음이 금방 사라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모두 업(業)의 습(習) 때문입니다.

그럴 때마다 인과를 굳게 믿는 신심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에는 한 치 오차 없는 인과가 인연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야말로 한 점의 공짜도 없음이니, 얻고 잃는 모든 일에 있어서 집착하지 않는 마음을 길러 스스로를 편안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으리.

〈조계종 총무원장〉

